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속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HCMC

보 도 자 료

[자료문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070-7150-3073 / 5417-9021

교장 김원균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Say' KIS 2018 영어토론 대회 개최 - 나의 생각을 자신 있게 외치다!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원균)는 지난 5월 12일(토) 'Say' KIS 고등부 영어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54명은 147명이 지원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로, 그동안 갖고 닦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Say' KIS 영어토론 대회는 올해 2회째로, 예년보다 학생들이 영어 활용 능력과 더불어, 토론 태도 면에서 매우 발전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에서 실시될 최저 임금 인상”,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핵에너지 사용 확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화장 규제”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 3팀과 반대 3팀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자유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cross-examination(반대심문)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각 팀에게 주어진 발언 횟수와 시간 내에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치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날카롭게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토론 형식이었음에도 학생들은 토론 규칙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참여하여 양질의 토론을 끌어냈다.

대회 후 12학년 김재원 학생은 “우리 학교에 이런 대회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즉석에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공식 토론협회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토론 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번 'Say' KIS 고등부 영어토론 대회는 토론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건전한 태도를 함양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이 한층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관련사진]

